

새마을 건강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의의

준비위원장 홍 정 혜

오랜동안 건강은 질병을 퇴치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어 좋은 치료시설을 많이 만들면 국민의 일반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라나 민간자본은 건강을 얻기 위해 자원을 질병치료기관인 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많으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간호학, 약학등을 포함한 건강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우리 모두의 것이 못되고 병원이란 울타리에서 소수의 것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원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바른 인식이 없고 간호원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건강관리라고 칭한다면 이는 분명히 치료 이상의 사업 즉, 병원관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어야 하며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서 사업 즉, 의료인이나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병원이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자 하는 기본욕구이자 기본권으로서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이 기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노력이 주민에게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지역개발 운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엔 소득증대 그리고 나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소득증대나 경제발전은 새마을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답게 잘 살아 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중간목적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이 없이는 소득증대도 경제발전도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사업이 소득증대와 더불어 새마을 사업의 중간 목적이 될 중요한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민이나 의료인이나 국가가 좀 더 바쁜 노력을 하기 위하여 갖게 된 이번 발표회는 단순히 건강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운동인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새마을 건강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회를 갖는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제도나 체계, 정책 기획 집행등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실수요자인 마을 주민과 건강을 제공하는 의료인 그리고 행정가들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발표를 통하여 간호원이 마을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지역, 우리마을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비싼 대가를 치루지않고 좀 더 건강한 마을을 이룩할 수 있느냐를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나 위치를 통하여 할 수 있느냐를,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협동하여 건강한 개인, 가정 그리고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색은 여섯 분야로 나뉘어서 열띤 논의를 한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간호원은 물론 타의료인이나 교육자 그리고 행정관 또한 주민대표들 각기의 사명감을 고취시켰으며 자기의 역할을 십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믿으며, 간호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요 지도자요 관리자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일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지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고 특히 간호원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건강 자조자립의 새마을 건강사업에 더욱 폭넓게 또 깊이 주민속에 안착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사료되어 그 성과가 대단히 컸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